

# TIPLONews 한국어본

2024 년 1 월호(K293)

K231130Y1

## 01 202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창업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특허심사 시범운영 방안」 수정안 고시

대만 경제부 지혜국은 2023 년 1 월 1 일부터 속행한 「신생창업기업<sup>1)</sup>을 위한 적극적인 특허심사 시범운영 방안」이 2023 년 12 월 31 일에 만료되는데, 이를 갱신하여 1 년간 더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더 많은 혁신 신생창업기업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생창업기업의 자격 제한을 완화하였고, 신생창업기업이 본 시범운영방안에 의거, 발명특허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신생창업기업은 특허출원 시 출원인이어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삭제하였다. 이 외에도 신생창업기업의 「설립 8 년 미만」으로 되어있던 기간 산출방법을 기존의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특허출원일까지」에서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본 시범운영방안 신청일까지」로 변경하였다. 본 시범운영방안은 2024 년 1 월 1 일부터 발효된다. (2023.11)

역주:

- 1) 중국어로는 新創產業, 한국에서는 스타트업(Start-up)등으로 불리고 있고 여기서의 신생창업기업이라고 하였다.

## 02 지난 10 년간의 상표출원의 연 평균 성장률은 녹색상표가 상표 전체를 상회

넷제로(Net Zero)<sup>1)</sup>라고 하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에 대처를 하고 있다. 다만 경제부에 의하면, 지난 10 년에 있어서의 상표출원의 연 평균 성장률은 녹색상표가 상표 전체를 웃돌고 있어, 특히 녹색상표의 출원은 「에너지 절약」, 「오염 제어」, 「에너지 제품」의 3 대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대만의 상표등록출원 건수는 최근 3 년 모두 연 9 만 건을 초과: 과거 10 년 동안 대만의 상표등록출원 건수는 전반적으로 성장을 거듭해 평균 연성장률은 2.8%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2020 년부터는 3 년 연속 9 만 건을 넘었다. 그러나 2023 년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1 월부터 10 월까지의 출원 건수는 7.5 만 건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했다.

대만 내국인의 상표등록출원은 최고기록을 계속 경신: 상표등록 출원을 국적별로 보면 대만 내국인의 출원이 가장 많아 최근 10 년간 매년 출원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2022 년에 내국인에 의한 출원은 7.4 만 건에 달해 최고 기록을 계속 경신하였다. 그리고 연성장률은 1.3%에 이르고, 출원인 전체의 78.4%를 차지해 2013 년 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외국인 출원은 2020 년 코로나 19 타격으로 급감한 뒤 2022 년에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였다. 외국인의 출원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21.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미국 17.5%, 일본 17.3%이 잇고 있다

여성 출원은 매년 증가: 최근 10 년간 자연인 출원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을 보면, 2013 년에 여성의 상표 등록 출원 건수는 자연인 전체의 31.9%를 차지했었다. 그런데, 해마다 성장하여 2022 년에는 41.3%에 이르고 있다. 정부가 상표의 전자출원 시스템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더하여, 최근의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고 있고, 여성에게 취업이나 기업 등의 다원적인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여성에 의한 상표출원의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과거 10 년간 상표출원의 연평균 성장률은 녹색상표가 상표 전체를 상회: 대만 지혜재산국의 「대만 과거 10 년 녹색상표 산업의 비교분석」 자료에 의하면, 녹색상표의 출원건수는 2013 년 8845 건에서 2022 년 1 만 5105 건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6.1%에 달해 상표 전체의 2.8%를 상회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녹색상표의 출원 건수가 상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상승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2022 년에 녹색상표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9%에 이르러, 2013 년 대비 4.0 포인트 상승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녹색상표가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만이 탄소중립이나 넷제로라는 목표를 위해 매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있다.

대만의 녹색상표 제품은 「에너지 절약», 「오염 제어», 「에너지 제품」의 3 대 분야에 집중: 녹색상표의 2022 년 출원건수를 9 대 분류별로 보면, 많은 순으로 「에너지 절약」 6,745 건, 「오염 제어」 5,029 건, 「에너지 제품」 3,740 건으로 그 외의 분류를 크게 웃돌고 있다. 또한 과거 10 년 동안의 출원 건수 추이를 보면, 각 대분류는 모두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절약」은 2022 년에 2013 년 대비 3,272 건 증가하여 가장 많았고, 2017 년에는 「오염 제어」를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다. 또한 「재활용」은 2013 년~2022 년 평균 연성장률이 17.4%에 달해 가장 높았다. (2023.12)

역주:

- 1) 원문 중국어 淨零排放은 넷제로(Net Zero)의 중국어 표기로, 탄소중립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 K231214Y3

### 03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은 환송심에서 Heluo 는 「무림군협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

대만 컴퓨터게임 업체인 Soft-World<sup>1)</sup>는 Heluo<sup>2)</sup> 가 개발한 컴퓨터 게임 「협객풍운전」<sup>3)</sup>이 자신들이 개발한 「무림군협전」<sup>4)</sup>의 저작권 침해하였다며 Heluo 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대만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은 2023 년 11 월 30 일의 환송 1 심 판결에서 Soft-World 는 Heluo 가 「무림군협전」의 후속 복제 또는 개작하는 것을 목인, 동의하고 있었으므로, Heluo 가 해당 저작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지 않았고, 나아가 Heluo 가 「무림군협전」이라는 용어, 미술및 음악의 저작물을 침해하였다고 하는 Soft-World 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였다.

Heluo 와 회사 책임자 쉬창룽(徐昌隆)에 대해 Soft-World 에 대한 배상금 (대만화폐 2400 만원)을 지급하고 침해를 배제하라는 1 심 판결은 모두 취소되었으며, 아울러 2 심에서는 추가로 자유시보 제 1 면에 판결 주문을 게재하라는 청구 등도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다. 본건은 더 상소할 수 있다. (2023.12)

역주:

- 1) 중국어명 智冠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 Soft-World International Corporation (Soft-World)
- 2) 중국어명 河洛遊戲有限公司, 영어명 Heluo Games Co., Ltd) (Heluo); 본 회사는 원래 Soft-World 의 컴퓨터게임 개발 부문에서 기업분사 형태로 분리되어 형성된 회사
- 3) 중국어명은 俠客風雲傳, 여기서는 한자발음에 의거, 협객풍운전으로 번역
- 4) 중국어명은 武林群俠傳, 여기서는 한자발음에 의거, 무림군협전으로 번역

K231229Y8

K231229Z8

#### 04 대만과 한국 간 조세협정 2024 년 1 월 1 일 발효

대만 재정부는 오는 28 일 대만과 한국 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 2023 년 12 월 27 일 발효되며, 2024 년 새해 첫날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하였다. 금회 협정은 대만의 35 번째 조세협정이며 이에 따라 대만과 한국 양측 비거주자의 배당,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세율이 모두 10%로 인하되어 대만 일본간 조세협정과 같은 수준이 된다.

대만 재정부에 의하면, 대만과 한국은 경쟁관계에 있지만 반도체 집적회로나 메모리 제조에 있어서는 상호보완성이 있고 제휴의 여지가 있어 세제상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배당금등 원천세율을 낮추어 우호적인 조세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양측의 경제무역관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원천세율과 관련, 원래 한국에서 비거주자의 배당,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세율은 모두 22%이고, 대만에서 비거주자의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은 21%, 이자에 대해서는 15% 또는 20%, 로열티에 대해서는 20%이었다. 그런데 금회 조세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양측의 배당,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세율은 모두 10%로 인하되어 여타 대다수의 다른 조세협정 수준이 된다.

대만 한국간 조세협정에서는 상호협의 절차에 관한 조문이 마련돼 있어 양측 거주자에게 협정의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양측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협의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전 가격(移轉價格, Transfer Price)에 대해 조정 신청을 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거나, 또는 이전 가격에 대해 사전 확인 신청을 함으로써 향후 어느 한쪽에서 이전 가격 조사가 이루어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2023.12)